

인도네시아 인프라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12월 3주~12월 4주)

□ 정책 및 시장 동향

1. 프로젝트 정보

- [인프라-철도] 자카르타 MRT4, Jabodetabek LRT와 연계 예정^{1)(Bisnis, 12/14)}
 - PT MRT Jakarta(MRTJ) 사장 Tuhiyat는 Jabodetabek LRT와 연계될 Fatmawati-TMII 노선이 PPP 방식으로 추진되는 Jakarta MRT 건설 4단계 사업으로 개발될 계획이라고 설명. 이어 ‘26년 착공을 목표로 하는 동서축 MRT 3단계 Medan Satria-Tomang 구간의 건설 완료 이후 착수될 예정이라고 덧붙임
 - MRT4는 MRT 1단계 Lebak Bulus-Bundaran HI 구간과의 연결을 포함해 Jabodetabek LRT, KRL Commuter Line, Transjakarta 등 주요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됨. 또한 Jabodetabek 지역의 철도 기반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Cikarang, Bekasi, Balaraja를 연결하는 동서축 MRT 노선 구축 장기 계획의 일환임
- [인프라-철도] Borneo 3국(인니·브루나이·말레이시아) 철도망, 인니 재원 조달 관전^{2)(Kompas, 12/15)}
 - 말레이시아 Sarawak 州 교통부 장관 Lee Kim Shin과 브루나이 민간기업 BrunEnergy는 Borneo 지역에서 인니·브루나이·말련 3국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을 제안. 특히 자국 지역을 인니 신수도 핵심 지역과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 제안을 공식 제출
 - 다만 인니 Semarang 가톨릭 대학교 교통전문가 Djoko Setijowarno는 해당 프로젝트에 지리적·재정적·행정적 복합 과제가 존재하며, 특히 철도 기반 인프라 사업은 PPP 방식으로 재원 조달이 쉽지 않다는 점이 주요 제약 요인으로 지적

1)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1214/98/1936692/ini-rute-mrt-fatmawati-tmii-yang-akan-terintegrasi-lrt-jabodebek>

2) <https://ikn.kompas.com/read/2025/12/15/125125087/menimbang-peluang-proyek-ambisius-kereta-lintas-3-negara-menju-ikn?page=all>

- 또한 Djoko는 프로젝트 추진 여부가 자바 외 지역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재원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
- [플랜트-발전] 남부수마트라州 Lahat 소수력, 그린에너지 우수 사업으로 선정³⁾(Detiksumbagsel, 12/7)
 - 남부수마트라州 주지사 Herman Deru는 그린에너지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Lahat郡 Singapure에 위치한 Lahat 소형 수력발전소를 시찰하며, 약 10년간 운영되어온 본 시설을 남부수마트라州의 대표적 청정에너지 성공 사례로 평가
 - 해당 발전소는 Endikat River 유량을 활용한 10MW 유닛(‘15년 가동)과 8MW 유닛(‘22년 가동)으로 구성되며, 이중 8MW 유닛이 Lahat 지역의 전력공급에 사용되고 잉여전력은 Trans-Sumatra 전력망으로 송전되어 북부지역 전력공급 지원
 - Pagar Alam市가 그린에너지 시범도시로 공식 지정된 이후 재생 에너지 개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Endikat River 하류에 약 20MW 규모의 추가 소수력FS 진행 중
- [플랜트-발전] PLN, 에너지자립·탄소감축 목표 향후 민간파트너 참여 기대⁴⁾(Bisnis, 12/15)
 - PT PLN 자회사 PT PLN Nusantara Power는 총 1.7GW 규모 가스화력발전 사업을 통해 에너지 자립 추구 및 탄소배출 감축에 기여코자 함. 동부자바 800MW 규모 Jawa-3 복합화력은 ‘27년 상업운전(COD)을 목표로 하며, 동부자바 300MW Java-Bali 4 가스화력, 발리 300MW Java-Bali 5 가스화력, 람풍 300MW South Sumatra 2 가스화력발전소는 모두 ‘29년 COD를 목표로 함
 - 이어 PLN은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개발사, 운영사, EPC, 금

3) <https://www.detik.com/sumbagsel/berita/d-8246872/pltn-lahat-jadi-percontohan-energi-hijau-pertama-di-indonesia>

4)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1215/44/1936753/pln-tawarkan-peluang-kerja-sama-untuk-4-proyek-pembangkit-gas-17-gw>

융기관 등 향후 다양한 프로젝트 기회에 파트너사로 참여하고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

- [플랜트-가스] 두바이 에너지 기업 Mubadala Energy-EPI, Andaman 해역 가스전 가스 매매 HOA 체결⁵⁾(Medcom.id, 12/9)
 - 두바이 에너지 기업 Mubadala Energy와 PLN 자회사인 PT PLN Energi Primer Indonesia(PLN EPI)는 Andaman 해역 가스전의 가스 매매를 위한 HOA를 공식 체결했다고 밝힘
 - Mubadala Energy Indonesia 사장 Abdulla Bu Ali는 이번 HOA가 북부수마트라ство와 아체ство의 에너지 공급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근거가 되며, 북부수마트라ство에서 약 65km 떨어진 해상에 위치한 Tangkulo 가스전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한다고 설명. 이어 해당 가스전의 가스 매장량은 2조 ft³ 이상이라고 덧붙임
 - Abdulla 사장은 Mubadala Energy의 글로벌 역량과 PLN EPI의 국내 역량을 결합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협력의 목표라고 강조

2. 주요 기업 · 기관 동향

- [현지기관] 특별경제구역위원회, Danantara에 동부지역 특별경제 구역 개발 참여 제안⁶⁾(Cnbc, 12/9)
 - 특별경제구역위원회(National SEZ Council) 사무총장 직무대리 Rizal Edwin Manansang은 인니 동부 특별경제구역 개발에 국부 펀드 Danantara의 참여를 독려중
 - 현재까지 인니에서 개발된 총 25개 SEZ 중 동부지역에 조성된 SEZ로 는 Sorong SEZ, Morotai SEZ, Bitung SEZ, Likupang SEZ 등이 있음
- [일주요기업] 일미쓰비시상사, 64백만불 이상 투자규모의 자카

5) <https://www.medcom.id/ekonomi/bisnis/gNOroevb-mubadala-energy-dan-pln-epi-pasok-energi-bersih-nasional>
6) <https://www.cnbandonesia.com/news/20251209140227-4-692529/pemerintah-tawarkan-danantara-kembangkan-kek-di-indonesia-timur>

르타 물류센터 2곳 건설 추진7)(Asis, 12.9)

- 일미쓰비시상사는 인니에 물류센터 2곳을 건설할 계획이며 총 투자규모는 약 64백만불(100억엔) 이상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이를 위해 자카르타 인근 2개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를 확보했으며, 공사는 ‘26년 5월 착공해 ‘27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
- 인니내 성장중인 전자상거래 및 전기차 산업 수요를 타겟으로 총 연면적 11만m² 규모의 단층 창고 2개 동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미쓰비시상사가 설계와 임차인 선정을 직접 주도할 계획
- 미쓰비시상사는 ‘23년 이후 비일본계 파트너들과 함께 인니내 물류창고 프로젝트 3건에 소수지분 참여 통해 개발경험을 축적 했으며, 이번 사업에는 전체 투자금의 90% 이상을 직접 부담할 계획. 일본기업들의 유휴토지 매각이 증가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개발용 토지 확보도 검토 중이며, 인니 물류창고 시장 규모는 ‘23년 28.5억불에서 ‘28년 42.5억불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해외기업] 중국·러시아, 자바 외 지역 철도사업 참여의지8)(Bisnis, 12/6)

- 교통부 장관 Dudy Purwagandhi는 중국·러시아·미국이 자바 외 지역 철도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힘. 또한 프라보워 대통령 요청에 따라 추진되는 철도 프로젝트 참여 의사를 표시한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뿐이라고 설명
- Dudy 장관은 정부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가 수마트라·칼리만탄·술라웨시 섬 지역의 화물열차 개발이며, 이는 물류 지원에 필수적이라고 강조. 아울러 화물 운송은 PT Kereta Api Indonesia 총 수익의 40%를 차지한다고 설명
- 장관은 칼리만탄 지역과 관련해 인니 수도권 주변 철도 개발 관련 FS가 신수도청(OIKN)과 PT KAI, 민간 부문이 공동으로 진행중이라고 밝힘. 이어 신수도청이 수행한 FS 결과는 PT KAI 및 민

7) <https://asia.nikkei.com/spotlight/supply-chain/mitsubishi-corp-to-build-2-logistics-centers-in-indonesia>

8)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1206/98/1934680/china-hingga-nusia-minat-garap-proyek-ka-trans-railway-di-luar-jawa>

간 부문의 FS와 비교하여 가장 적합하고 경제적으로 수익성 있는 철도 개발 모델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임

○ [해외기관] 일 MUFG-Danantara, 전략적 투자협력 강화⁹⁾(Ekbis, 12/9)

- MUFG Bank와 국부펀드 Danantara는 일본 도쿄에서 Indonesian Day를 개최하며 양국 간 전략적 투자협력 강화를 추진. 양측은 이번 포럼을 통해 인니의 장기 발전을 위한 우선 분야로의 자본 유입 확대를 독려
- Indonesian Day는 MUFG가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인니 기관과 장기투자 성향의 일본 투자자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인니의 장기 아젠다 지원 의지를 더욱 분명히 하는 자리라고 덧붙임
- 인니 대표단에는 Pertamina, PLN, BNI, Bank Mandiri, Pelindo, MIND ID 등 주요 국영기업 관계자들이 포함. 포럼에서 국부펀드 Danantara는 인니의 거시경제 · 우선 산업 분야 · 국가 투자 환경에 대한 개요를 제시. 국영기업 관계자들은 일본 투자자들로부터 긍정적 관심을 받고 있는 주요 전략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을 공유

○ [해외기관] 일 JUBH, 핵심정부구역 방문 및 스마트시티 협력방안 모색¹⁰⁾(Borneoflash, 12/5)

- 일 산업 · 도시개발 · 건축 · 주택 국제협회(JUBH)와 10개 일본 기업 대표단은 신수도 정부핵심업무지구(KIPP)의 전략적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주택, 수자원 관리, 스마트시티 생태계 개발을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힘
- JUBH 회장 Akira Ichikawa는 일본 대표단과 기업의 방문이 신수도 직접투자를 모색하는 첫걸음이며, 참석 기업들은 인니에서 사업 경험이 있는 기업이라고 설명. 또한 JUBH는 도시개발 · 주택 · 건설 분야에서 정부-산업협회-일본기업 협력을 촉진하는 국제협회라고 덧붙임

9) <https://ekbis.sindonews.com/read/1653715/34/mufg-dan-danantara-dorong-kolaborasi-investasi-strategis-jepang-indonesia-1765282379>

10) https://borneoflash.com/2025/12/05/investor-jepang-tinjau-langsung-progres-ikn-jajaki-kerja-sama-perumahan-hingga-smart-city/#google_vignette

- 신수도청 청장(OIKN) Basuki Hadimuljono는 일본 대표단의 방문이 신수도 개발에 대한 실질적 지원의 한 형태로 평가된다고 언급
- [해외기관] 요르단 전략적 투자 협력 위한 MOU 체결¹¹⁾(Tempo, 12/11)
 - 국부펀드 Danantara는 Danantara Investment Management(DIM)를 통해 Jordan Investment Fund(JIF)와 요르단 하심 왕국 전역에서의 전략적 투자 기회를 공동 검토하기 위한 MOU를 체결
 - 본 합의는 인프라, 도시개발, 교통, 에너지 전환, 디지털 및 기술 기반 프로젝트 등 우선순위 분야에서 공동투자 및 투자 기회를 평가하기 위한 협력의 기반을 마련. 또한 프로젝트 개발, 투자 준비 및 지식 교류 분야에서 양국 국부기관 간 협력 확대를 가능하게 함
 - Danantara CEO Rosan Roeslani는 이번 서명이 인니와 요르단간 투자협력 관계에서 중요한 이정표이며, 장기적 가치 창출과 상호 경제발전에 기여할 전략적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JIF와의 협력을 환영한다고 밝힘
- [해외정부] 카타르, 인니-카타르 공동 펀드 형태로 Danantara에 20억불 투자 약속¹²⁾(Antara, 12/16)
 - 주인니 카타르 대사대리 Al-Reem Hassan Al-Ibrahim는 국부펀드 Danantara에 대한 카타르의 20억불 투자가 인니 경제의 미래와 잠재력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언급
 - 프라보워 대통령은 4월 13일 카타르에서 연례 전략 대화 메커니즘 수립에 관한 MOU를 체결했으며, 이후 20억불 규모의 투자 약속이 인니-카타르 공동 펀드 형태로 조성되며, 개발과 다양한 전략적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힘
 - Al-Reem Hassan Al-Ibrahim 대사대리는 MOU를 통해 정치 ·

11) <https://www.tempo.co/info-tempo/danantara-indonesia-dan-jordan-investment-fund-menandangani-mou-untuk-menjajaki-kdahorasi-investasi-strategis-2097978>

12) <https://gorontalo.antaranews.com/berita/374485/investasi-ke-danantara-qatar-kepercayaan-terhadap-ekonomi-indonesia>

국방 · 경제 · 에너지 · 식량안보 · 관광 · 보건 ·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에 대한 공동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 또한 카타르와 인니가 ‘26년 외교 관계 수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국민과 국가를 위해 보다 긴밀한 협력과 공동 성과가 창출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

3. 정부 정책동향

- 프라보워 대통령, 에너지 자립 위해 연료 수입 절반 감축 및 재정 절감 추진¹³⁾(Antara, 12/16)
 - 프라보워 대통령은 연료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에너지자립 정책을 재확인했으며, 연간 약 311억불(520tril IDR)에 달하는 연료수입 비용을 절반으로 감축해 국가재정에서 약 149억불(250tril IDR)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힘
 - 프라보워 대통령은 ‘26년부터 경유 수입을 금지하여 외국산 연료 공급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며, 파푸아를 포함한 각 지역에는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에너지 수요를 독자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강조
 - 아울러 대통령은 에너지 생산 지역이 자체 생산 에너지를 우선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해 공정한 에너지 분배를 도모할 계획이며, 팜유 · 사탕수수 · 카사바 등 인니의 농업자원을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로 전환함으로써 수입을 줄이고, 지역 에너지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

4. 녹색산업 동향

- PLN, 글로벌 투자자 유치 통한 녹색에너지 재원 격차 해소 의지¹⁴⁾(Kompas, 12/9)
 - PT PLN은 인니 재생에너지 개발 가속화를 위한 재원 격차 해소를

13) <https://en.antaranews.com/news/396763/prabowo-eyes-trillions-in-savings-through-energy-independence>

14) <https://money.kompas.com/read/2025/12/09/130124126/pln-bidik-investor-global-untuk-tutup-kesenjangan-pendanaan-energi-hijau>

위해 영국을 포함한 글로벌 투자자 및 금융기관의 자금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PLN 사업 · 기업개발 부문 부사장 Abdan Hanif Satria는 ‘25~‘34년 전력공급사업계획(RUPTL)을 통해 총 69.5GW의 추가 발전설비용량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중 75%가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기술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설명. 이어 ‘34년까지 총 1,300억불 규모의 발전 투자 로드맵이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임
 - 또한 PLN은 전체 투자 소요 중 약 25%만 자체 조달이 가능하여 재원격차 해소를 위해 국내외 민간 투자자의 참여가 필요하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리스크 완화를 위해 전력구매계약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
- [WTE] Danantara WTE로 Bantargebang 폐기물 문제 해소 의지¹⁵⁾(Bisnis, 12/16)
 - 식량조정부 장관 Zulfiki Hasan은 서부자바州 Bekasi市 Bantargebang 소재 통합폐기물처리장의 폐기물 문제가, 향후 2년내 국부펀드 Danantara의 폐기물 에너지화(WTE) 사업과 연계되어 해결될 것이라고 밝힘
 - Hasan 장관은 지난 11년간 단 3개의 WTE 사업만 실현되었으며, 이는 복잡하고 장기화된 인허가 과정이 투자자의 참여를 저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 이어 장관은 ‘25년에 제정된 대통령령 제 109호(친환경 기술을 통한 도시폐기물 관리)를 통해 정부는 불필요하게 복잡한 각종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자 관심을 높이고 WTE 사업 개발의 위험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임

15)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1216/44/1937210/sampah-jadi-listrik-pemerintah-klaim-tps-bantargebang-akan-murah-dalam-2-tahun>

□ 중점 프로젝트 동향

① 자카르타 데이터센터

< 사업 개요 >

- (사업 주) SM플러스 (시나르마스그룹 계열사) – 한투그룹, KIND, S펀드 출자 싱가포르 SPC
- (참여기업) LG CNS (현지법인 통해 장비공급·설치, 운영, 직접사용 및 재판매)
- (사업 비) 2.9억불
- (사업내용) 자카르타 시내 수전 30MW, IT Load 18MW 데이터센터 건설, 운영, 매각
- (추진현황) 본사 투자의결(‘25.9.4) 및 이사회의결(‘25.9.15) / 현재 공사중
- (25년 센터목표) 본사 투자의결 (달성)

- (주요동향) 대출약정 협상 진행중

② BSD 신도시 주거단지

< 사업 개요 >

- (협력사) 시나르마스 랜드 (Sinarmas Land, SML)
- (참여기업) 대우건설, 대한주택협회 회원사 JV
- (사업 비) 미정
- (사업내용) 46.6ha에 한국테마 적용 주거단지 (빌라 및 샵하우스) 건설, 분양
- (추진현황) 대우건설-SML MOU 체결(‘24.9.2), 1차(~‘25.8) 및 2차 연장(~‘26.2.15) - 토지가 협상, 자체 FS 완료 – Termsheet 체결 - 최종 FS 수행 중
- (25년 센터목표) FS 자금지원 선정 (달성) / ‘26.1Q 투자심의 부의 준비

- (주요동향) KIND 지원 FS 용역 진행중

③ 수방 전기차 특화 산업단지

< 사업 개요 >

- (협력사) 현지 디벨로퍼/토지주
- (참여기업) GS건설 및 중국계 기업 참여 검토중
- (사업 비) 미정
- (사업내용) 수방 지역내 산업단지를 단계별 조성, 분양 통해 Exit
- (추진현황) ‘25.2 전반적 협력 MOU 체결, ‘25.5~7월 NDA 체결 및 수방산단 사업 Pre-FS 수행 / ‘25.12 정부사업 실사로 인한 사업순연 발생
- (25년 센터목표) 본사 내부검토안건 등재

- (주요동향) 정부정책에 따른 변수발생으로 사업순연 예정

④ 자카르타 MRT 4호선

< 사업 개요 >

- (발주처) 자카르타 주정부(DKI Jakarta)
- (참여사) 플레너리 + KIND, 국가철도공단, 삼성물산
- (사업비) 15억불 ('22년 Pre-F/S 기준)
- (사업내용) 자카르타 MRT 4호선 건설, 유지보수 ⇒ AP로 회수 (운영 분리예정)
- (추진현황) K-컨소 LOI 제출('23.2), LTP(AP 제외) 수령('24.1.26), 수정 LTP(AP 포함)
수령('25.2.19) - 기한연장 확정('25.7.8) - 플레너리 참여 합의
- (25년 센터목표) LTP 기한연장 획득 (달성) / 플레너리 참여 (달성) 및 FS업데이트

- (주요동향) 플레너리-K컨소, 컨설팅 후보사 대상 RFP 발송

⑤ 신수도 공무원주택

< 사업 개요 >

- (발주처) 신수도청(OIKN)
- (참여기업) 삼성물산, 브란타스(현지건설공기업) + CSCEC(협의중)
- (사업비) 약 4억불
- (사업내용) 신수도내 공무원주택(아파트 21개동) 건설, AP로 회수
- (추진현황) '24.10 삼성물산-브란타스 MOU, '24.11 LOI 제출, '25.5.22 LTP 수령,
'25.10월 LTP 기한연장 확정(~26.1) - FS제출용 설계 발주 검토중
- (25년 센터목표) LTP 기한연장 (달성) / 추가 기한연장

- (주요동향) 이전 2주 대비 큰 변동사항 없음

□ 기타 프로젝트 동향 및 센터 운영 현황 보고

① 기타 프로젝트 동향

① Nusantara 신도시 (신수도, 또는 정치수도) 건설

< 사업 개요 >

- (발주처) 신수도청(OIKN, Otorita Ibu Kota Nusantara)
- (참여기업) 현지 국영건설사 재정사업 참여중 / PPP사업 외국기업 참여 추진중
- (사업비) 466조 Rp (원화 약 40조원)
- (사업내용) 자카르타의 고질적 문제와 지역균형발전 추구 목적으로 동칼리만탄에 신수도를 건설 / 프라보워정권 출범후 정치수도로 재명명
- (추진현황) 재정으로 대통령궁 및 집무실, 공무원주택 및 오피스, 도로, 사법단지 등 완공 및 건설중 – PPP로 지하공동구(MUT), 공무원주택, 관제센터 등 추진중
- (25년 센터목표) 공무원주택 FS 협조 / 관제센터 등 추가사업기회 구체화

- (주요동향) 신수도 건립은 부정적 여론 · 평가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추진되고 있는 장기 · 대형사업으로, 사업기회 지속 모색 필요

- 신수도 관련 현지 언론보도 종합

- PT PP, 신수도내 3대 주요 국가기관 사업 계약 공식 체결¹⁶⁾
(Cnbc, 12/5)

- PT PP가 3대 주요 국가기관 건설사업 계약을 공식 체결. 이번 계약 체결에는 신수도청 청장(OIKN) Basuki Hadimuljono와 PT PP 사장 Novel Arsyad, 국내 건설 서비스 제공 컨소시엄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중앙정부 이전 가속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됨
- PT PP가 수행하는 세 개의 사업은 신수도청 지원시설 건설, 본회의장 및 주변 구역, 지역대표의회(DPD RI) 건물 및 주변 구역 건설을 포함하며, 이번 3개 사업은 모두 ‘25~‘27년 국

16) <https://www.cnbcindonesia.com/market/20251205122559-17-691441/ptpp-resmi-teken-kontrak-tiga-proyek-besar-kelembagaan-negara-di-ikn>

가예산으로 추진될 계획

- 특히 신수도청 지원시설에는 경찰청 본부, 유틸리티 건물, 모스크, 의식·체육 시설, 통합 지역 계획 등이 포함되며, PP-ADHI-JAKON KSO 컨소시엄을 통해 진행될 예정
- 한-인니, 누산타라 스마트시티 포럼에서 스마트시티 협력 강화¹⁷⁾
(Portal balikpapan, 12/4)
 - 누산타라 스마트시티 포럼 2025(NSCF)는 신수도청(OIKN)과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로, 양국 전문가들이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구축, 스마트 빌딩 프로토콜 개발, 스마트시티 기술의 경제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논의.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신수도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스마트시티 기술 및 정책 개발에 대한 공동 의지를 재확인
 - 신수도청 청장 Basuki Hadimuljono는 수도 개발에서 혁신이 핵심이며, Smart City Cooperation Center(SCCC)가 도시 환경에서 기술과 정책을 직접 시험하는 실증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
 - 국토교통부 조은혜 팀장은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진전을 높이 평가하며, SCCC의 설립과 운영이 한-인니 협력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설명. 또한 이번 협력이 단순한 기반시설 구축을 넘어 현대 도시 수요에 부합하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스마트시티 기술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임
- 신수도청, 7.56억불 규모의 8개 신수도 개발사업 계약 체결¹⁸⁾
(Bisnis, 12/5)
 - 신수도청(OIKN)은 입법·사법지구 착공을 위한 8개 공사 패키지 계약을 체결하며 신수도 2단계 개발을 본격화했다고 설명. 현재 2단계 28개 사업 중 20개 패키지가 체결됐으며, 이중 14개는 건물·시설 개발, 6개는 공사 관리·감독 패키지라고 덧붙임

17) <https://portalbalikpapan.com/indonesia-korea-perkuat-kolaborasi-smart-city-dalam-nusantara-smart-city-forum-2025/>

18)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12/45/1934612/dorita-teken-kontrak-8-proyek-ikn-senilai-rp1257-triliun-ini-perindiannya#goog_rewareded

- 이번 계약은 입법부 건물·업무지구 5개 패키지(총 16개 건물, 4.181ha), 사법부 건물·업무지구 2개 패키지(총 4개 건물, 15.15ha), 지원시설 1개 패키지로 구성. 지원시설 패키지는 신수도청 2단계 청사 3개 동(2.9ha)과 신수도 경찰서 1단계 건물 3개 동(3.07ha) 건설로 이루어짐
- 신수도청은 8개 사업 패키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

신수도청이 제시한 8개 사업 패키지 (7.56억불 규모)		
-	사업내용	규모
1	신수도 하원(DPR RI) I청사 및 기관구역	약 1.14억불(1.9tril IDR)
2	신수도 하원(DPR RI) II청사 및 기관구역	약 1.26억불(2.1tril IDR)
3	신수도 상원(DPD) 청사 및 기관구역	약 0.96억불(1.6tril IDR)
4	헌법재판소·사법위원회 청사 및 모스크	약 1.08억불(1.8tril IDR)
5	대법원 청사·기관구역 및 Justice Plaza	약 0.84억불(1.4tril IDR)
6	본회의장 건물 및 회의구역	약 0.78억불(1.3tril IDR)
7	국민평의회(MPR) 청사·기관구역 및 지원 건물	약 1.02억불(1.7tril IDR)
8	기타 지원 건물	약 0.46억불(0.778tril IDR)

- 신수도청, 신수도 불법 채굴 및 국유 토지·산림 거래 방지 위한 단속·행정 조치 강화¹⁹⁾(Antara, 12/17)

- 신수도청(OIKN) 행정총괄 Bimo Adi는 신수도에서 무허가 채굴과 국유 토지·산림의 불법 거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힘. 이어 신수도를 법질서가 확립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강조
- Bimo 행정총괄은 ‘25년 한 해 동안 태스크포스를 통해 대중 대상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취약 지역에 금지 표지판을 설치했으며, 교통법규 위반, 무허가 채굴, 국유 토지·산림 거래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설명
- 행정총괄은 여러 이해관계자와 공동업무 계획 수립 및 평가를 통해 불법행위 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신수도 개발이 거버넌스·지속가능성·법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 또한 ‘26년에는 지역 경계 데이터 수집·검증, 순찰·단속, 대중교육, 태스크포스 인력 역량 강화를 포함한 전략적 프로그램을 추진할

19) <https://en.antaranews.com/news/396799/indonesia-strengthens-controls-against-illegal-activities-in-nusantara>

계획이라고 덧붙임

② 포노고로 스마트가로등 PPP

< 사업 개요 >

- (발주처) 포노로고시(Ponorogo Regency)
- (참여기업) 도화엔지니어링, 에코란트
- (사업비) 328억원
- (사업내용) 2,623개 스마트 가로등 설치, 기반공사 및 운영
- (추진현황) 인근지역 KCN 실증 完, 호평 – 포노로고 대상 KIND FS지원, 준공('24.3)
- 물량확대로 도화 자체적 FS보완 - KIND에 제안서작성지원 신청검토
- (25년 센터목표) 제안서작성지원 또는 사업개발비 투입 본사 건의

○ (주요동향) 문서/절차 이슈 점검중

- Letter To Proceed 포함 문서 및 절차적 문제가 없을 때 KIND도 비용투입 가능함을 사업주(도화)에 전달

③ 바탐 항나딤 공항 확장

< 사업 개요 >

- (발주처) 바탐 경제자유구역청(BIFZA)
- (참여기업) 인천공항공사 컨소시엄
- (사업비) 5,948억원
- (사업내용) 기존 T1 리뉴얼, T2 신설, 공항운영 및 지원시설 재배치
- (추진현황) 바탐공항 운영권 인수 및 운영 개시('22.7~'47.6)

○ (주요동향) 상업시설(14개 사업권, 32개 매장) 운영사업자 선정입찰 완료('24.1). T1 리노베이션 공사 완료 및 운영개시('24.4)

- T2 신설 재원조달 상황 점검하여 KIND 참여가능성 타진 예정

② 협력센터 운영 보고

- 주요기업, 기관 면담 (12월 3~4주)
 - 네트워킹 3건 : 한-인니 녹색산업협의체, 건설공제조합, BNG컨설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사업개발 8건 : 삼성물산, 플래너리, 국가철도공단, Intiland, LH, Jababeka, GS건설, 모듈러·태양광 중소기업(공감생활·세라종합건설)
 - 대관업무 2건 ; 기재부 민간투자정책과, 국토관, ASEAN 과기관, 인프라공기업,